



# 종업원

정광훈 정문정보(주) 회장은 1947년 전남 나주에서 태어났으며 1972년 서울대학교 부속초등학교 서무과에서 4년여 근무하다 종업원 1명으로 인쇄업에 진출했다.

그는 탁월한 경영수완을 발휘, 창업 27년이 지난 2004년 현재 273명의 종업원이 연간 1천억원의 훨씬 웃도는 매출을 올리는 국내 굴지의 종합 미디어 업체로 성장시켰다.

특히 정문정보는 미국 MS사와의 계약을 통해 윈도우에 필요한 CD롬 소프트웨어를 국내에 공급하고 있으며 DVD롬 디스크를 주력 생산품으로 하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 콤팩트디스크, 디지털 디스크 시장을 석권하고 있으며 97년 코스닥에 등록한데 이어 2000년대 들어서는 해외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광훈 회장은 탁월한 경영능력과 인쇄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2002년에 인쇄문화상을 수상했으며 지난 2월 21일에는 동신대학교에서 명예경영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정문정보는 신기술 개발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2003년 대통령으로부터 산업포장을 받았고 2000년에는 장영실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정광훈 회장을 만나 그동안 창업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성공담을 들어 보았다.

# 1명으로 인쇄업 시작

## 27년만에 종합미디어 업체로 우뚝

▲ 우선 명예 경영학박사 학위를 받으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학위를 받게된 계기와 소감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저에게 명예 박사학위를 수여한 동신대학교는 전라남도에 소재한 우수 사학입니다. 지금까지 세분에게 명예 박사학위를 수여했는데 첫 번째는 제일 교포에게, 두 번째는 중국의 국가와 민족을 위해 업적을 남긴 분에게 수여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출향 인사 중 성공한 기업인에게 수여하기로 하고 대상자를 물색했는데 제가 영광스럽게도 선정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기업인으로서의 성공과 정문정보가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 한 점이 인정되어 선정된 것 같습니다. 이번 명예 경영학박사 학위 취득은 개인적으로는 물론 정문정보에게도 그간의 성과와 회사 가치를 인정받은 의미 있고 명예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명예 경영학박사 학위를 받을 만큼의 위치에 섰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명예 경영학박사 학위에 부끄럽지 않도록 기업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기업인으로서의 자세를 확고히 해 나가야 하겠다는 다짐을 해보게 됩니다.



대답을 하고 있는 정광훈 회장(왼쪽)과 본지 유창준 편집국장

▲ 이번 학위수여는 고향에 대한 회장님의 애정이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회장님의 고향과 고향을 향한 그간의 애정을 소개해 주십시오.

이번에 명예 경영학박사 학위를 받은 동신대학교가 위치한 곳이 나주인데, 저희 선조들이 800년 전부터 그곳에 자리를 잡고 집성촌을 형성하며 살았습니다. 나주는 역사학자이시며, 항일 민족혼 고취에 앞장서운 저의 할아버지인 정우익 선생의 숨결이 남아있는 귀중한 안식처이기도 하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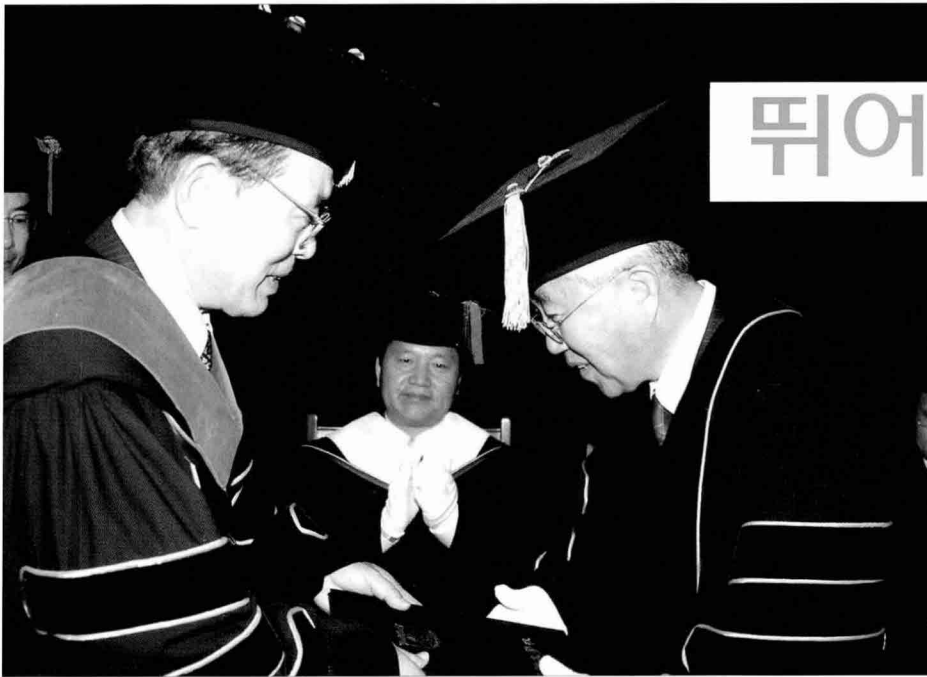
나주 출신 기업인으로서 자연스레 고향에 대한 애착과 관심을 갖고 있으며,

지역의 불우이웃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오고 있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동신대학교에 밀레니엄타워 건립기금으로 3억원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또 산학협동 차원에서 동신대학교의 우수 인재를 정문정보 연구소에 채용하고 있으며, 우수학생을 선정하여 매 학기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인쇄와 인연을 맺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조부님을 비롯한 선친께서 독립운동을 했던 관계로 살림살이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

# 뛰어난 경영수완



이규범 총장으로부터 명예박사학위를 받고 있다.

한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해방 후 좌우익의 갈등으로 인한 혼돈의 시대를 살면서 고향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서울로 올라 왔지요. 4년여 동안 서울대학교 부속초등학교에 근무하다가 1976년 을지로에서 정문정보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정문사'를 설립했습니다. 직원이래야 여직원 한명이 전부였습니다. 제 자신이 필경일부터 납품까지 도맡아 처리했습니다. 이후 회사가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발전하면서 각 기업의 사원 연수용 교재와 자료를 인쇄하여 납품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쇄, 출판을 비롯한 각종 미디어 분야에 대한 안목이 점차 넓어져 갔습니다.

▲ 어떤 계기로 MS사의 소프트웨어 사업에 진출하게 되셨는지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납품을 하는 과정에서 안목이 넓어진 것 같아요. 플로피디스크(FD) 같은 기록매체에 엄청난 양의 정보가 수록되고 사용자들이 이를 광범위한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보면서 훌륭한 사업 아이템이 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곧바로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소프트웨어 한국 공급권 획득 전에 뛰어 들었습니다. 그때가 1993년으로 기억합니다.

사실 그 회사에 대해 아는 것도 별로 없고 국내 시장에 대한 시장 조사도 미

흡했던 터라 어떻게 보면 무모한 도전이었지요. 8개 사와의 힘든 경합 끝에 AR(Authorized Replicator)사업을 획득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소프트웨어를 국내에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곧바로 CD ROM 생산공정을 구축했습니다. 그 후 운이 따랐던지 국내 주요 PC업체들이 CD ROM Drive를 PC 필수사양으로 채택하면서 급격한 매출 신장을 이루었습니다.

결국 미래 흐름에 대한 예견과 과감한 설비 투자를 한 결과가 지금 정문정보의 초석이 된 것입니다.

▲ AR사업 분야에 공격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대부분의 국내 PC제조회사들이 중국 등 해외 진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회사도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1년 말에 미국현지법인 설립과 함께 멕시코에 공장을 지어 멕시코 지역의 AR권을 획득했고, PDA를 위한 Embedded store사업권도 획득했습니다.

2002년에는 세계최대 AR회사인 MMI와의 사업협력 계약을 체결하여 상호 협조체제를 확립, AR 사업의 글로벌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 추가로 중국 위해 지역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였으며 향후 유럽로의 진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정문정보의 주력 생산품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요.

정문정보는 MS사의 AR사업을 진행하면서 운영체제의 미디어 화를 위해 CD, DVD 및 매뉴얼(인쇄)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초로 DVD등 고용량 광 기록 매체를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각종 전기전자의 핵심 BOARD 류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는 디스플레이 사업부문에 본격 진출, LGP, BLU 등을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우리회사의 새로운 주력사업 및 제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내 기술연구소를 통해 기존 CD를 대체하는 고용량의 DVD와 향후 새로운 미디어 저장매체로 부각될 수 있는 제품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정문정보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정문정보는 93년 설립 이래 고속 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아직도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우리 회사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기술력을 꼽을 수 있습니다.

1999년 사내 부속연구소가 설립된 이래 DVD 등 미디어 분야에서 많은

# 명예경영학박사학위 받아

연구개발 성과를 나타내고 있고, 2004년부터 시작할 신규사업 부문인 LGP, BLU 등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면서 타 업체와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기술력은 미디어분야에서 그 빛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 DVD설비를 도입한 이후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DVD DISC 및 DVD STAMPER부문에서 각각 KT마크 및 장영실 상을 수상하였으며 TEST DVD분야도 NT마크를 획득했습니다. 금년에 시작하는 디스플레이 사업(LGP, BLU)역시 기술연구소의 성과에 의한 것이며 이와는 별도로 향후 DVD를 대체할 고용량 미디어 저장매체의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술력과 함께 이를 실현 가능케 해주는 설비 또한 정문정보의 큰 자랑입니다. MS AR사업의 근간이자 미디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인쇄, 미디어, KIT Assembly 공정 등 완벽한 설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정이 ONE-System으로 운영되면서 고품질의 제품 생산이 가능한 것이 우리회사의 최대 장점입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생산 관리를 위해 여타 중소기업과는 달리 약 20억원의 과감한 투자로 2001년부터 본격 가동한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인 SAP R/3



ERP시스템을 보유, 운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더에서부터 생산, 출하, 회계 데이터 집계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 운영되어 효율적인 관리체제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 앞으로의 사업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2004년 신규사업 아이템은 디스플레이입니다. 소형 LGP(Light Guide Panel)를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BLU(Back Light Unit)를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내 기술연구소가 자체 개발한 STAMPER 사출 방식을 적용, 타사 제품보다 생산성 및 단가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계획은 기존 설립한 해외법인의 안정화 및 수익성 증대를 꾀하겠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법인이 2003년부터 본격 영업 및 생산이 가동된 만큼 이전 내부적으로 안정화를 도모하여 매출 증대는 물론 효율적 관리체제 확립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중국 위해 및 동유럽 슬로바키아로의 진출을 통해 보다 공격적인 해외 마케팅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신기술 개발 및 신규사업진행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들 계획은 단기적인 계획이라기보다는 3년 내지는 10년 앞을 내다보고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를 위해 금년에 시작하는 LGP, BLU 등 디스플레이 사업을 조기 안정화시키고 기술연구소를 통해 기존 DVD를 대체할 수 있는 미래 미디어 스토리지(Media Storage)를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 회장님의 경영철학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개인적으로 성의(誠意)란 글을 좋아합니다. 마음이 가는 것을 意라 하고, 마음이 가는 것을 참되게 하는 것을 誠이라 합니다. 곧 마음을 다한다는 것이며, 모든 일에 誠意를 다하면 가정, 회사, 나라, 세계가 두루 발전하고 평화로워질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의 이런 생활신조가 바로 경영철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정성을 다하는 것은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기업의 상거래관계에서도 중요 덕목이라 생각합니다.

▲ 정문정보는 코스닥 등록기업인데 주가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대주주로서 주가 관리를 한다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회사가 지난해 상반기에 적자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실요인을 과감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러한 노력으로 3/4분기부터 흑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올해는 해외 법인에서도 흑자가 예상되고 신규 아이템도 개발되어 흑자폭이 늘어나고 회사도 발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인쇄업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많은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앞으로 비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영주들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대로 가면 많은 업체들이 도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은 것 같습니다.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각 회사별로 특징이 있어야 한다고 봐요. 우리나라 인쇄업체들은 시설과 생산품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격경쟁이 심해지고 품질제고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회사별로 특징이 있는 아이템을 개발해야

합니다.

둘째는 시대흐름을 잘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쇄'는 기록매체 업인데 그 생산방식은 과거와 사뭇 다릅니다. 펄프종이에 잉크를 입히는 방식의 인쇄가 언제까지 존재할 수 있을지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정보화 시대에 걸 맞는 인쇄방식을 하루빨리 찾아야 합니다. 공룡이 사라진 것은 시대흐름에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로 봐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살아남기 힘들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그러한 현상이 빨라질 것입니다.

셋째는 연합체 구성이 시급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 업체에서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인쇄물이라면 모든 것을 생산하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각각의 특징을 가진 회사들끼리 연합해서 시설과 영업, 생산, 물류를 공동으로 시행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상당할 것입니다.

넷째는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국내시장은 한계에 도달해 있다는 점을 대부분의 인쇄인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봐요. 우리나라 인쇄업계는 기술력과 인력이 우수합니다. 얼마든지 해외시장을 넓혀 나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ERP 등 관리시스템 구축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의지만 갖는다면 해외업체들과 연합도 가능합니다.

지금은 세계화 시대인 만큼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과 미주시장 진출도 그렇게 어렵게 볼일이 아닙니다. 우리 회사도 중국 소주와 위해에 진출해 있는데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국내 인쇄업체들이 중국에 진출코자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도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파트너 관계도 좋고요.

▲ 긴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 곳까지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담 유창준 국장 · 사진 이용우 기자)

### 정문정보는



1976년 정문출판으로 출발한 정문정보(주)는 경기도 동탄면 영천리 122-5에 본사를 두고 정문출판(주), 제이엠텔레콤, 미디어체인, 미국/멕시코현지법인, 중국현지법인을 관계회사로 두고 있다.

정문정보에는 23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MS AR사업, 미디어사업, 정보통신사업, 디스플레이사업을 담당하고 있고 1997년 코스닥에 등록했다.

서울시 중구 필동3가 62-7에 위치한 정문출판(주)는 각종 인쇄시설을 갖추고 기획 - 편집 - 출력 - 재판 - 인쇄 - 제본에 이르는 토털 인쇄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제이엠텔레콤은 디지털정보통신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유무선통신분야, 위성방송분야, 정보기기분야 등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첨단자동화 라인을 구축하고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 공급하고 있다.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1-2에 서울사무소를 두고 있는 미디어체인은 CD, DVD 등을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을 통해 고객에게 공급하기 위해 인터넷 쇼핑몰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